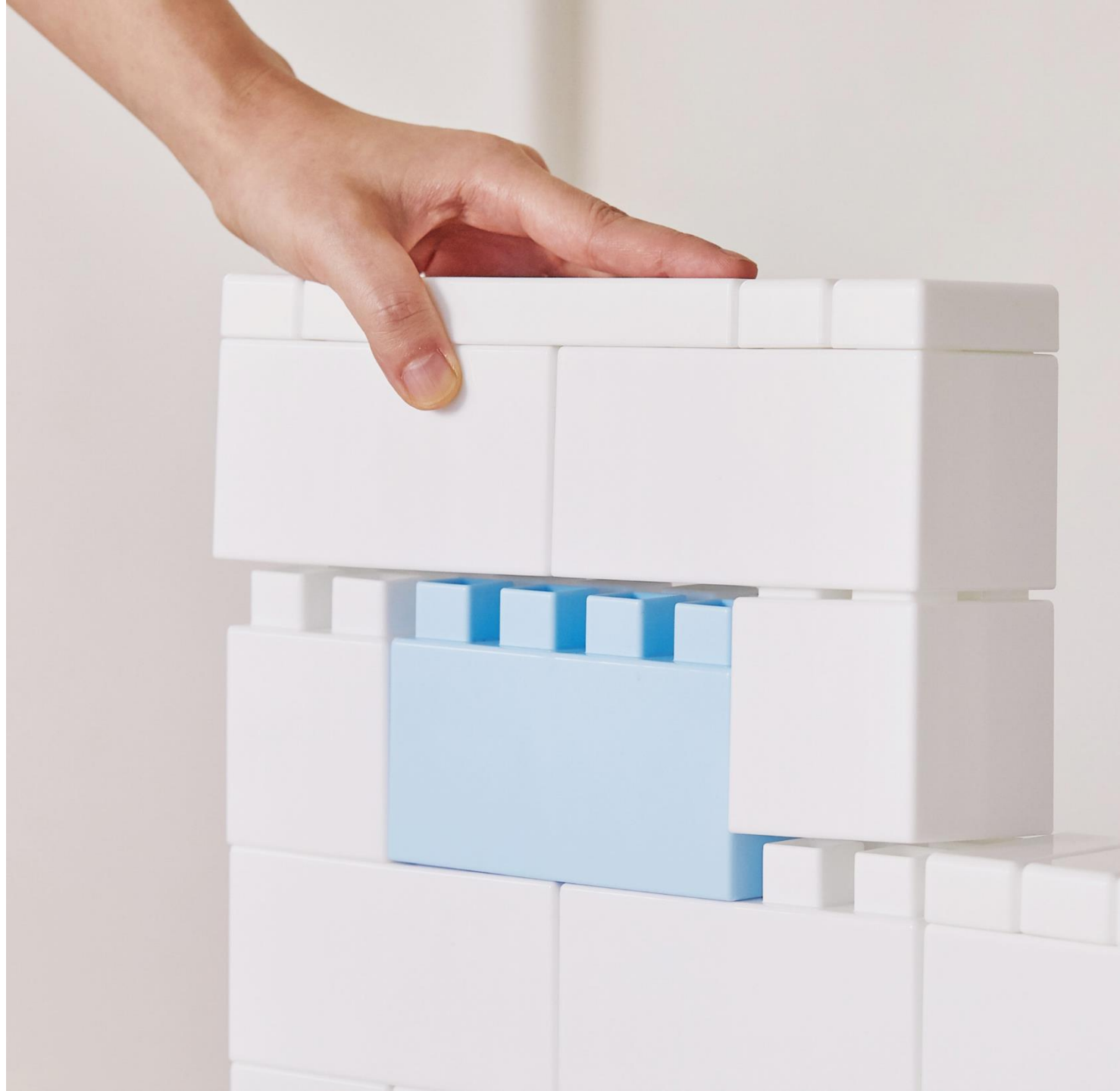




CMF (Color, Material, Finishing)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하는
프런티어를 찾아서!

여섯 번째 이야기.
브릭킷.



인천디자인지원센터 2층에는 매 시즌의 트렌드 컬러와 소재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CMF 디자인 라이브러리가 있다. 인천디자인지원센터는 NSDS(노루서울디자인스튜디오)가 전하는 2022-23' CMF 트렌드 주제를 매월 하나씩 선정하여, 그 주제로 제안된 컬러와 소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 디자이너, 작가의 제품과 작품을 이곳 CMF 디자인 라이브러리에서 전시하고 있다. 더불어 폭넓은 전시 감상을 위해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고 온라인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디자인 경영의 중요성을 홍보하고자 ESG 스페셜로 기획하였다. ESG의 윤리적 기준에 따라 CMF 분야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디자인 브랜드 4곳을 선별 선정하여 관련 컬러, 소재의 오프라인 전시와 함께 인터뷰 내용을 순차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다.

CMF 디자인 라이브러리에서 제안하는 여섯 번째 트렌드 주제는 ‘플라스틱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OF PLASTICS)’이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직간접 환경 오염은 여전히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로 남아 있으며, 국제 사회는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 및 일회용 품목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진보적인 브랜드와 디자이너는 자원 순환 시스템의 실험적 탐구와 재활용 재료의 제품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크리에이티브는 플라스틱을 가치 있고 흥미 있는 제품들로 변형시킴으로써 플라스틱과의 긴장된 관계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중 장난감 블록 제조업체 레고(Lego)의 실험적 시도들이 매우 인상적이다. 레고는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한 레고 블록 견본을 공개하며 1년 안에 재활용 레고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할 것이며, 2030년 이내에 플라스틱 기반의 레고 블록을 친환경 재료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페트병과 다른 플라스틱을 수백가지로 변형해 안정성과 품질을 시험하는 연구를 거듭한 결과 3년 만에 1리터 플라스틱 음료수병으로 약 10개의 표준 레고 부품을 만들어 냈다.



* NSDS(노루서울디자인스튜디오, NOROO Seoul Design Studio)는 시대 변화의 흐름을 논리적, 직관적으로 분석하여 실행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창의적 영감과 실행 전략을 제시하는 Creative Knowledge Group 이다. 세계 각국의 역량 있는 크리에이터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끊임이 변화하는 고객의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감성적 가치와 창의적 영감을 전하고 있다.



ESG를 선도하는 전시 솔루션. ‘SUSTAINABILITY OF PLASTICS’와 브릭킷

“SUSTAINABILITY OF PLASTICS”의 트렌드 주제에 최적화된 인터랙티브 콘텐츠 스타트업 브랜드 “브릭킷”을 이번 시즌 첫번째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했다. Zero waste(쓰레기 배출 최소화)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방법들이 전시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확산됨에 따라, 브릭킷은 공간에 가변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통해 창의적 영감을 제공하고 있으며, 폐기물이 없는 미래형 전시 솔루션을 전파하고 있다. 최근, 인터랙티브 미디어 기술과 연결해 아이들에게 창의적 학습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불철주야 실험적 탐구에 집중하고 있는 허윤실, 방현우 공동대표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Q. 브릭킷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브릭킷 공동대표 허윤실, 방현우입니다. 브릭킷은 엔비저블에서 오랜 시간 연구하여 자체 개발한 공간 조성용 특수 브릭으로, 총 6종의 브릭이 14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들을 여럿 수행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기존 공간을 침습하지 않고 먼지 없이 깨끗하게 시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구 없이 조립하듯 공간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브릭킷을 탄생시킬 수 있었지요. 짧은 시간 안에 시공해야 하거나 인테리어를 수시로 바꿔야 하는 공간에서 조립과 해체가 쉽고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브릭킷이 두각을 드러내며 업계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공간 조성 및 전시와 관련해 좋은 사례들을 꾸준히 만들며 지금의 브랜드로 성장하게 되었지요. 현재는 커스텀 공간 조성은 물론, 전시 부스 및 조형, 모듈러 가구, DIY 어린이 가구 키트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맞춤형 공간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Q. 친환경 이슈와 ESG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 브릭킷이 대표적인 ESG 디자인 사례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지금의 기업들에게 ESG 경영은 사회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을 위한 의무이며, 관련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활동은 기업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브릭킷은 친환경 인테리어 자재를 고민하며 시작된 솔루션이기 때문에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이 ESG경영의 근본적인 부분과 닮아 있어요. 플라스틱은 썩지 않는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소재로만 여겨지기 쉽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10번, 20번이 넘도록 재활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브릭킷을 대표적인 지속가능 디자인 제품으로 만들어 준 것이죠. 특히 브릭킷의 원료인 폴리프로필렌(PP)은 플라스틱 중에서도 식기나 젖병에 사용될 만큼 안전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이 매우 용이한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PP소재에 특화된 리사이클링 기술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브릭킷이 대표적인 ESG 디자인 사례로 많은 분들께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재사용이 가능한 솔루션을 내부적으로도 계속 연구, 개발하여 좋은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Q. 엔비저블은 폐기물이 없는 미래형 전시 솔루션을 위해 브릭킷을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언젠가 전시회의 환경오염 사례에 대한 기사를 읽었는데, 우리나라 국공립 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에서 평균적으로 5톤 트럭 4대 분량의 폐기물이 나온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지속가능한 전시’가 전시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브릭킷이 이런 전시 폐기물 문제의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시를 위한 인테리어는 특정 테마나 콘셉트에 맞추어 벽체나 조형, 집기 등이 제작되는데, 이는 다른 전시에 재사용하거나 활용하기가 어려워 대부분 폐기 처리됩니다. 그런데 브릭킷은 조립식 모듈 시스템이라 폐기물이 ‘0’에 가까워요. 브릭킷 전시 솔루션 역시 각각의 전시가 돋보일 수 있도록 커스텀 제작을 하지만, 접착제가 필요 없는 100% 조립형이기 때문에 전시 후 브릭킷 모듈을 분해하면 대부분 재사용할 수 있지요. 브릭킷이 제안하는 ‘폐기물이 없는 전시’는 ‘지속가능’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전시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래형 전시 솔루션입니다.



Q. 전시는 프로모션이 강조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미 정해져 있는 브릭킷의 컬러와 소재는 전시의 디자인 연출과 효과에 제한을 만들진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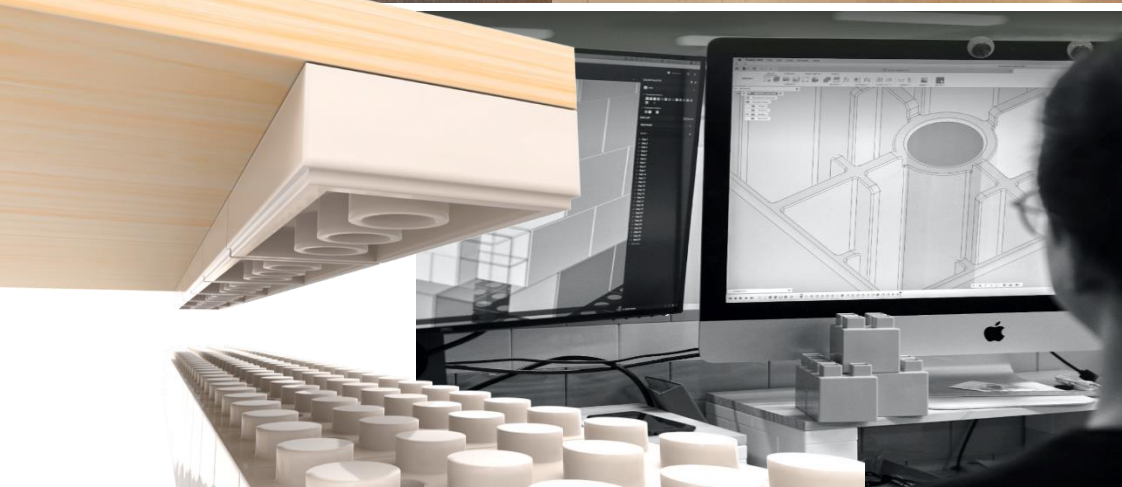
A. 브릭킷은 다양한 컬러 스펙트럼 중 가장 대표적인 14가지 컬러를 선정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키(key) 컬러를 반영하여 제작이 가능하고, 목재나 스틸, 유리, 패브릭 등 다양한 소재와도 잘 어우러져 활용도가 높습니다. 수많은 프로젝트에서 브릭킷의 기본 컬러 14가지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결과물을 얻었고, 픽셀 단위로 표현이 가능한 이미지와 글씨가 전체적인 디테일을 살려 완성도 높은 전시를 연출했습니다. 브릭킷은 크기와 컬러, 용도의 제한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소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프로젝트에서 브릭킷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널리 선보일 예정입니다.

Q. 브릭킷을 사용했던 고객 또는 브랜드의 반응과 소감이 매우 궁금합니다.

A. 브릭킷을 보면 어린 시절 한 번쯤은 가지고 놀았던 블록 장난감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릭킷은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조립과 해체는 블록 놀이하듯이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죠. 어떤 가정에서는 6살 어린이가 브릭킷으로 직접 책상을 만들어 사용해서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공구 없이 안전하게 완성한 거죠. 전시장에서는 반나절만에 드라마 세트처럼 멋진 초대형 조형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관계자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셨습니다. 오피스용 모듈형 브랜드 월도 개발, 판매했는데 매년 이사를 해야 하는 학습지 체험 센터에 시공 후 호평을 받아 전국 약 200여 군데에 설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세상에는 없던 솔루션을 만들어 내며 브릭킷은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한 번 브릭킷과 인연을 맺은 고객과 브랜드는 계속해서 함께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프로젝트 속에서 고객들의 만족감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분명히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Q. 브릭킷은 전시 디자인 분야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폭넓게 활용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브릭킷은 공간을 짓는 자재로 시작하여 성장한 브랜드입니다. 따라서 공간을 구성하는 벽체, 가구는 기본이고 라이브러리, 카페, 오피스, 놀이터 등 브릭킷으로 조성한 다양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어떤 크기와 모양의 공간이 주어져도 세부적인 설계가 가능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 속에서도 현장에서 바로 설계를 수정하여 문제를 즉각적으로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브릭킷의 큰 장점이지요. 빠른 조립과 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임팩트 있게 진행해야 하는 팝업 부스, 브랜드 월, 포토존 등으로도 자주 활용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개발한 인터랙티브 AR 콘텐츠의 체험 및 전시 공간도 브릭킷으로 조성하는 등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Q. 브릭킷에서 실행했던 대표적인 디자인 사례 또는 성과는 무엇인가요?

A. 최근에 진행했던 부천국제영화제(BIFAN)에서 XR전시와 관련된 모든 공간을 브릭킷으로 조성했습니다. 영화계 인사들과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이벤트라 브릭킷 팀도 즐겁게 진행한 프로젝트였죠. 전시의 좋은 점은 관객들의 반응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인데 국내 관객들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온 외국인 관객들까지 브릭킷으로 만든 공간을 진심으로 즐기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영화제의 캐릭터를 입체로 조형화해 대형 포토존을 만들었는데, 많은 관객들이 줄을 서서 촬영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의 즐거운 추억 속에 브릭킷이 함께한다는 것은 브릭킷 팀이 느끼는 큰 보람 중 하나입니다. 브릭킷은 앞으로도 좋은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전시,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Q. 브릭킷이 추구하는 디자인의 목표와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A. 공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브릭킷은 공간의 크기, 형태, 작업자의 숙련도 등 현장의 변수들에 관계 없이 좋은 퀄리티의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 조성 솔루션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zero waste 전시 솔루션으로 각광받으며 사업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죠. 내부적으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설계 및 시공 노하우를 더욱 고도화하여 전시 업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지속가능 전시 솔루션으로 자리 잡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장난감 블록 모양의 브릭킷 한 모듈이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전시의 대표 사례가 되고, XR콘텐츠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체험의 장이 되는 여러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희는 브릭킷의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브릭킷이 어느 산업 분야에서든 '지속가능'이라는 측면에서 그 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좋은 솔루션을 제시하는 브랜드로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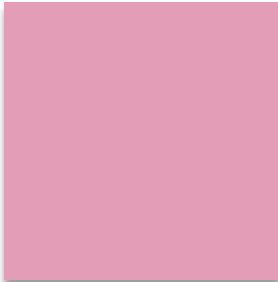
CMF 디자인 라이브러리에서 제안하는 여섯 번째 트렌드 주제 ‘SUSTAINABILITY OF PLASTICS’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컬러, 소재를 제안한다. 컬러는 ESG 실천 의지 표현 및 MZ세대 소비자와 공감대를 강화하고자 하는 브릭킷의 컨셉 이미지에서 추출했다. 익숙함에 친근함을 강조한 플라스틱 버킷(Plastic Bucket), 매혹적인 상상을 자극하는 스트리트 핑크(Street Pink), 다른 색들과 쉽게 조화를 이루는 레진 그린(Resin Green), 단조로움에 활력을 불어넣는 할로겐 오렌지(Halogen Orange), 어떤 컬러 와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인포멀 그레이(Informal Gray), 농도 짙은 강렬하고 풍부한 색감을 보여주는 올라운드 레드(All-round Red) 6종이다.

그리고, 주제와 연결하여 함께 추천할 만한 디자인 소재들을 인천디자인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재 라이브러리 DB에서 찾아 소개한다. 다양한 컬러 구현과 성형이 우수한 범용적 펄 컬러 사출성형 ABS(Pearl Color Injection Molding ABS), 보는 각도에 따라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고 반짝거리는 카멜레온 TPU(Chameleon TPU), 자연채광과 인공조명 연출효과에 최적인 투명 ABS(Transparent ABS),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블록 형태로 사출한 재생 펠릿 블록(Recycled pellet Block) 4종이다. 이상 추천 제안한 10가지의 트렌드 컬러와 소재 샘플들은 인천디자인지원센터 2층 쇼룸에 방문하면 직접 만나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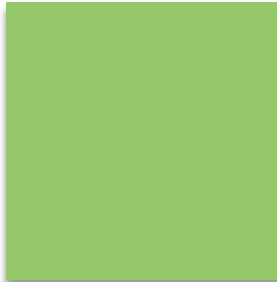
플라스틱 버킷
Plastic Bucket
IDSC-BL012-22A



스트리트 핑크
Street Pink
IDSC-RE011-22A



레진 그린
Resin Green
IDSC-GR011-22A



펄 컬러 사출성형 ABS
Pearl Color Injection Molding ABS
PLA-A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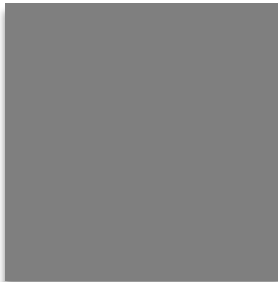
카멜레온 TPU
Chameleon TPU
PLA-A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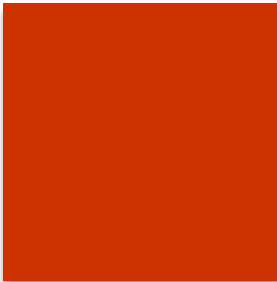
할로겐 오렌지
Halogen Orange
IDSC-YB016-22A



인포멀 그레이
Informal Gray
IDSC-BW009-22A



올라운드 레드
All-round Red
IDSC-RE012-22A



투명 ABS
Transparent ABS
PLA-A041



재생 펠릿 블록
Recycled Pellet Block
PLA-A427



